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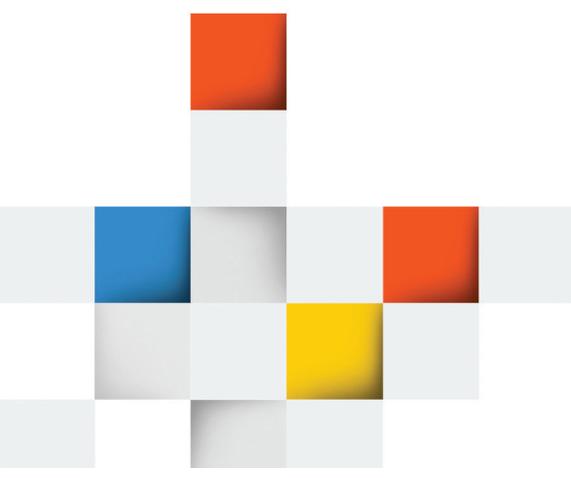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1 **2021**  
<http://sri.kostat.go.kr>



통계청  
통계개발원

## 가족가치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계봉오 (국민대학교)

- 한국의 가족가치관은 전통적인 태도가 약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으며, 가족관계 만족도는 점차 향상되어 왔다.
- 성, 연령, 혼인상태, 가족구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가족가치관 차이와 가족관계 만족도 차이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 코로나19 이후 대졸 이상 남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와 가족관계 만족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는데, 이는 향후 가족형성 및 가족생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는 미국과 비교할 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은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가족가치관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본다. 가족가치관은 가족 형성 및 부부 간의 역할 분담과 관련된 태도를 의미한다. 가족가치관과 가족관계 만족도는 교육수준의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혼인의 지연, 출산의 감소 등 사회경제적·인구학적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결혼의 중요성과 부부 간의 역할 분담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 추이는 예측이 보다 어렵다. 이는 가족관계 만족도

가 가족가치관의 중장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조건의 단기간적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020년 한국사회를 휩쓴 코로나19의 충격은 가족가치관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는 가족의 중요성을 환기시켰으며, 고용불안의 증가, 재택근무 및 원격교육의 확대로 인해서 가족구성원의 상호작용 방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가치관과 가족관계의 다양한 측면과 더불어 인구 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가치관은 결혼, 이혼, 혼전동거(cohabitation), 비혼출산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가족가치관의 측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변화 또한 관계를 맺는 대상(배우자, 자녀, 부모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족구성 등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조건에 따라 변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다양성에 주목하면서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 「사회조사」의 가족가치관과 가족관계 만족도 문항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의 가족 가치관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미국의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를 비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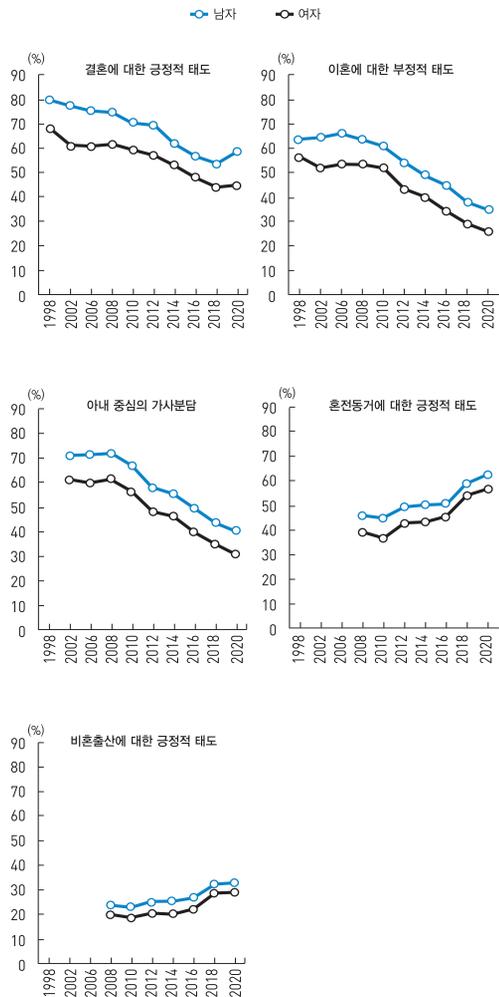
## 가족가치관의 변화

### 성별 및 연령별 가족가치관의 변화

[그림 II-19]는 성별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준다. 가족가치관을 측정하는 항목은 결혼, 이혼, 성별 가사분담, 혼전동거, 비혼출산에 대한 태도이며, 각 항목이 조사에 포함된 가장 이른 시점부터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남녀 모두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고, 이혼하면 안 되며, 가사노동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약화되고 있다. 또한 혼전동거와 비혼출산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중 또한 줄어들고 있다. 결혼, 이혼, 아내 중심의 가사분담에 대한 태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비율이 높은 반면, 혼전동거와 비혼출산을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족가치관과 관련해서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발견된다. 팬데믹의 유행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증가추세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변화가 남성에게서 더욱 두드러

[그림 II-19] 성별 가족가치관 변화, 1998-2020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이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이혼에 대해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또는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4) 아내 중심 가사분담은 가사노동 분담에 대해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 또는 '아내가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5) 혼전동거 및 비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혼전동거와 비혼출산에 대해 각각 '전적으로 동의' 또는 '약간 동의'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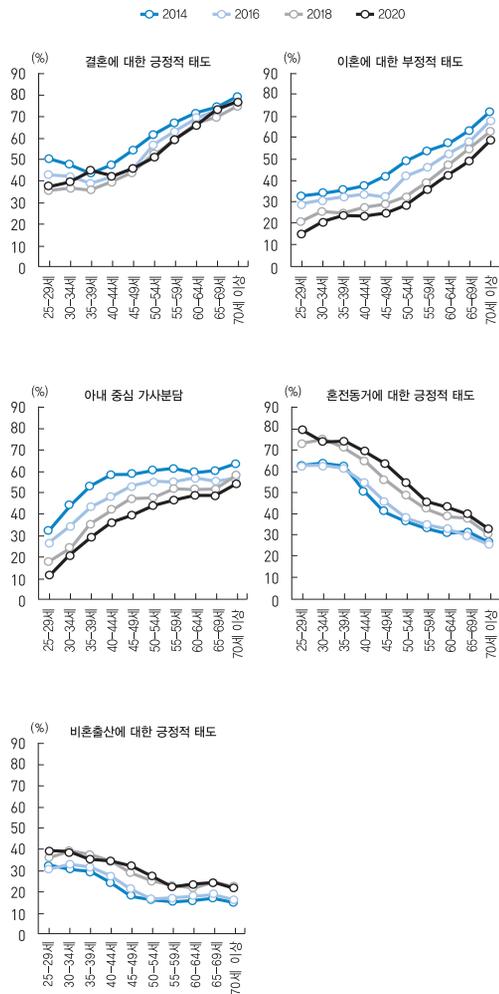
졌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남성의 비율은 2018년 53.3%에서 2020년 58.4%로 5.2%p 증가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2018년 44.0%에서 2020년 44.7%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또한 비혼출산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남녀 모두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의 확산이 특히 결혼에 대한 전통적 가족가치관이 약화되는 경향을 완화시켰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혼, 가사분담, 혼전동거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의 약화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0]은 2014-2020년 기간의 연령별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준다. 우선 가족가치관을 보여주는 5개의 항목에서 전부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전통적 태도를 유지한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이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 아내 중심의 가사분담에 대한 동의 비율이 증가하고, 혼전동거와 비혼출산과 같은 비전통적인 가족구성에 대한 태도는 연령이 올라가면서 동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각 연령층의 가족가치관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2018년보다 2020년에 증가했다. 특히 30-40대 연령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30-40대의 결혼관이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림 II-20] 연령별 가족가치관 변화, 2014-2020



주: 1) 만 2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이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이혼에 대해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또는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4) 아내 중심 가사분담 태도는 가사노동 분담에 대해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 또는 '아내가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5) 혼전동거 및 비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혼전동거와 비혼출산에 대해 각각 '전적으로 동의' 또는 '약간 동의'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혼, 가사분담, 혼전동거, 비혼출산에 대한 태도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전통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의 감소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다소 둔화되었다. 특히,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켰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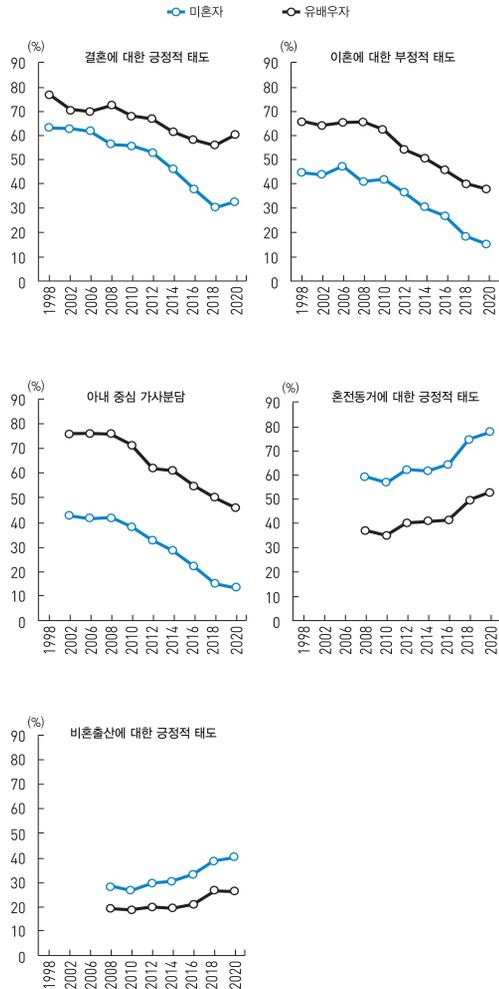
### 혼인상태 및 가족구성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변화

[그림 II-21]은 혼인상태에 따른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준다. 우선, 유배우자가 미혼자보다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에 더 강하게 동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배우자가 미혼자보다 결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이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내가 주로 가사를 맡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유배우자는 혼전동거와 비혼출산 등 비전통적인 가족 형성 방식에 대해서는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혼인상태별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면,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 미혼자 및 유배우자 모두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2020년에 다소 강화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변화 추세에서 벗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강화는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한편 가구 내에 미취학아동(0~5세)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결혼에 대해서

[그림 II-21] 혼인상태별 가족가치관 변화, 1998-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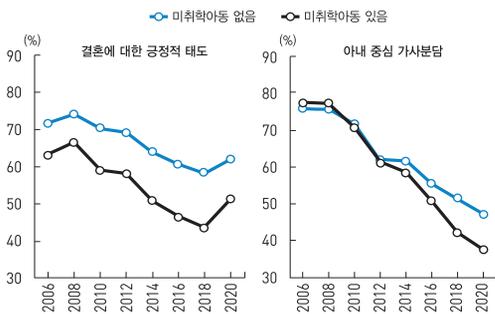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이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이혼에 대해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또는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4) 아내 중심 가사분담 태도는 가사노동 분담에 대해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 또는 '아내가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5) 혼전동거 및 비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혼전동거와 비혼출산에 대해 각각 '전적으로 동의' 또는 '약간 동의'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2018년까지 다소 확대되었다. 이는 미취학아동의 양육부담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를 거치는 과정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상당한 폭으로 감소했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는 사람들의 비중은 미취학아동이 없는 경우에는 2018년 58.4%에서 2020년 61.9%로 소폭 상승했지만 미취학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43.5%에서 51.3%로 상승하여 차이가 좁혀졌다.

또한 전반적으로 아내 중심의 가사분담에 동의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미취학아동이 있는 사람들이 보다 평등한 부부간 가사분담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2020년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II-22] 미취학아동 유무별 가족차관 변화, 2006-2020



주: 1) 만 15세 이상 유배우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미취학아동 유무는 가구 내 만 0-5세 가구원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3)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4) 아내 중심 가사분담 태도는 가사노동 분담에 대해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 또는 '아내가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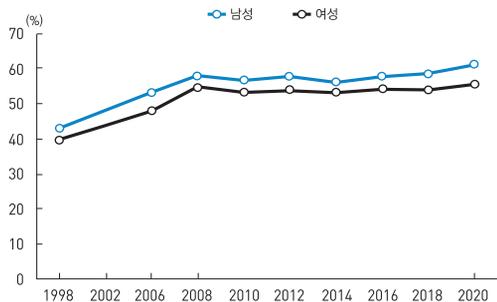
어린 자녀의 존재로 인한 양육부담의 증가가 보다 평등한 가사분담의 형성으로 연결되고,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었고 미취학아동이 있는 부부는 양육부담 증가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

####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그림 II-23]은 성별에 따른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가족관계 만족도가 향상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는데, 이러한 성별 차이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20년의 경우에도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가 향상되는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

[그림 II-23] 성별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1998-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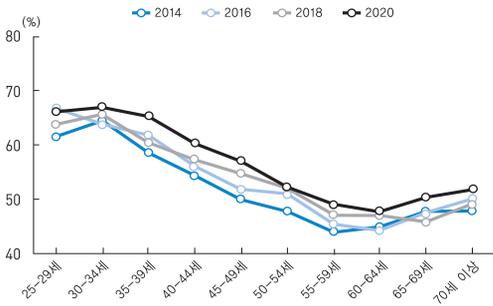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2002년의 경우 해당 항목이 조사되지 않았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II-24]는 2014년 이후 연령별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 패턴은 연령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50대 중반 이전까지는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약간 하락하다가 50대 후반 이후에는 만족도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점차 향상되고 있는데 2018년 고령층의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이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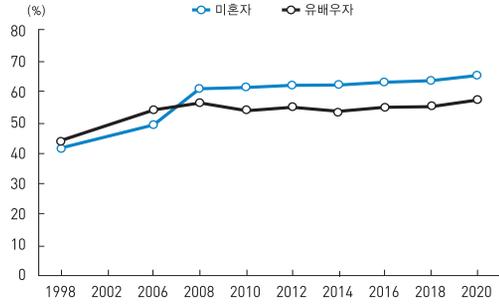
[그림 II-24] 연령별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2014-2020



주: 1) 만 2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편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의 경우 2006년까지는 유배우자의 만족도가 미혼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었는데, 그 이후부터 상황이 역전되어 유배우자의 만족도가 미혼자의 만족도보다 낮은 수준인데, 그 차이는 2010년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그림 II-25).

[그림 II-25] 혼인상태별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1998-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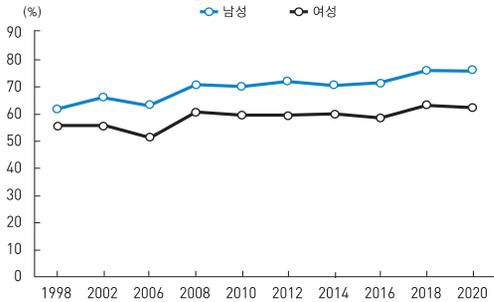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3) 2002년의 경우 해당 항목이 조사되지 않았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만족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며 배우자와의 만족도의 성별 격차는 최근에 오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2020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남녀 모두 2018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향상 추세가 둔화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감소하고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증가했는데, 이러한 증가가 2020년에는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향상시키지 않은 것이다. 단, 변화의 폭이 크지 않고 이러한 변화 추이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다(그림 II-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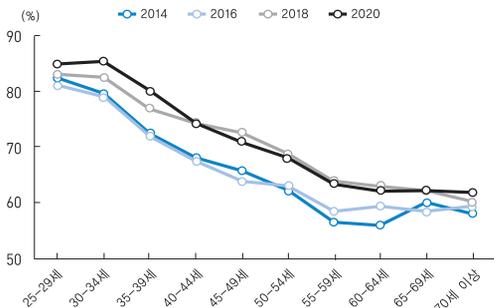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2014년 이후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상승되는 추세를 보여

[그림 II-26] 성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1998-2020



주: 1) 만 15세 이상 유배우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II-27] 연령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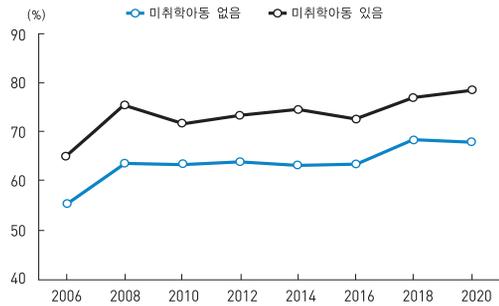
주: 1) 만 25세 이상 유배우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주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상승 추세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정체되었다. 2018년에는 그 이전보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눈에 띄게 향상되었던 반면에 2020년에는 2018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상호작용의

변화가 이러한 정체의 한 원인일 수 있다. 또한 연령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감소하고 있다 (그림 II-27).

한편 미취학아동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더 높으며, 2020년에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아주 소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II-28).

[그림 II-28] 미취학아동 유무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2006-2020



주: 1) 만 15세 이상 유배우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미취학아동 유무는 가구 내 만 0-5세 가구원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3)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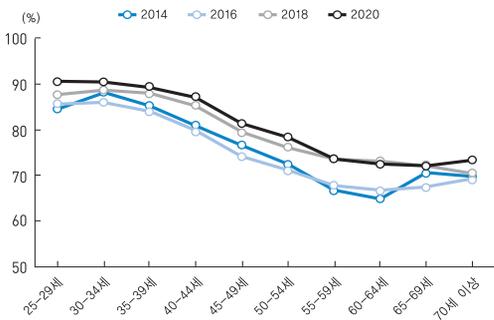
###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전체적으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다소 부침이 있지만, 점차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에서 차이가 없지만 연령별로는 차이를 보인다. 즉 연령층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감소하고 있다.



한편 2014년 이후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의 향상 추세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정체되었다. 2018년에는 이전보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눈에 띄게 향상되었던 반면에 2020년에는 2018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로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패턴에 변화가 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그림 II-29).

[그림 II-29] 연령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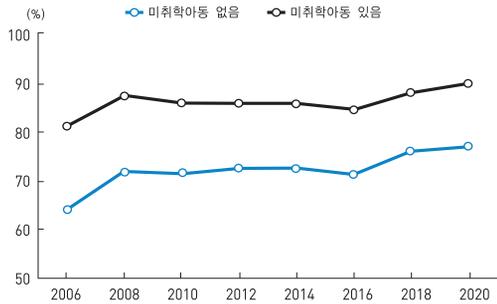


주: 1) 만 25세 이상 인구 중 자녀가 있는 유배우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차이를 보면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취학아동이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가 2020년에 소폭 증가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배우자

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약간 증가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II-30).

[그림 II-30] 미취학아동 유무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2006-2020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자녀가 있는 유배우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미취학아동 유무는 가구 내 만 0-5세 가구원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3)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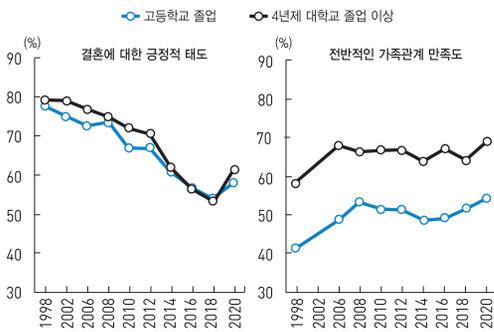
**성별 및 교육수준에 따른 결혼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

앞에서 가족가치관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의 성별 차이가 증가했다. 그런데 성별과 교육수준을 함께 고려할 경우 가족가치관 변화와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II-31]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여주는데, 성별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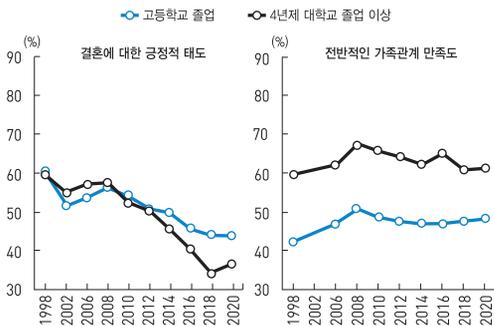
대졸 이상 남성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은 2018년 53.7%에서 2020년 61.6%로 크게 증가했으며,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 고졸 남성의 경우도 4년제 대졸 이상 남성과 비슷한 패턴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그 변화 폭은 상대적으로 작다.

[그림 II-31] 성 및 교육수준별 결혼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1998-2020

1) 남성



2) 여성



-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 2) 교육수준을 '고등학교 졸업 미만',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초과-4년제 대학교 졸업 미만',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가독성을 위해 대표적인 학력집단인 '고등학교 졸업'과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결과만을 제시하였음.
- 3)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 4) 전반적인 가족 관계 만족도는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 5) 2002년의 경우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조사되지 않았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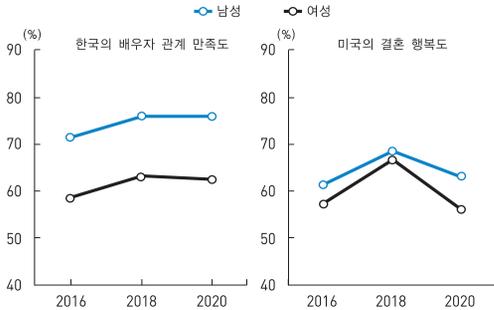
이와 대조적으로 대졸 이상 여성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2018년 대비 2020년에 소폭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졸 이상 남성과 달리 대졸 이상 여성은 코로나19로 인한 근무형태 변화, 시간사용 변화 등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지 못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가족생활과 가족관계의 변화를 다룬 연구(진미정 외, 2020)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더 많이 하락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성별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분석에서 고려한 네 집단 중 코로나19 이후 가족가치관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가장 크게 경험한 집단이 대졸 이상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의 확대, 야근 및 회식의 감소 등으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 대졸 이상 남성이 결혼 및 가족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국제비교

[그림 II-32]는 코로나19 이후 한국과 미국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비교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한국 자료는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보여주며, 미국 자료는 결혼생활 만족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매우 행복', '어느 정도 행복', '별로 행복하지 않음'으로 구분되었고, [그림 II-32]는 '매우 행복'



[그림 II-32] 한국과 미국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변화, 2016-2020



주: 1) 한국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통계치는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미국의 결혼 행복도는 3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통계치는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NORC, General Social Survey 2016-2020 panel, 2021.5.

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조사자료에 동일한 문항이 없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의 경우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가 남녀 모두 크게 변화하지 않은 반면, 미국의 결혼 행복도는 2020년에 남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이로 인한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맺음말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은 약화되어 왔으며, 가족관계 만족

도는 점차 향상되어 왔다. 성별, 연령, 혼인상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는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다. 둘째, 코로나19의 충격을 경험한 2020년에는 성별 및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에 눈에 띄는 변화가 관찰되었다. 남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와 가족관계 만족도는 긍정적으로 변화했는데, 특히 대졸 이상 남성이 큰 변화를 경험한 반면 대졸 이상 여성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 셋째, 미국과 비교할 때, 코로나19가 한국의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결혼 및 가족관계 만족도의 성별 및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의 증가는 어떤 함의를 갖는가? 남성의 결혼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실제 결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는 대졸 이상 남성을 중심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대졸자의 결혼관이 성별로 격차가 벌어진다면 이는 향후 가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관계 만족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는데, 교육수준과 성별에 따른 가족생활의 격차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진미정, 성미애, 손서희, 유재언, 이재림, 장영은. 2020.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스트레스.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3): 447-461.